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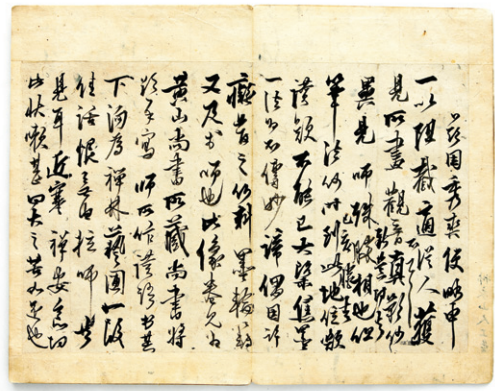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근자에 발췌된 〈벽해대운첩〉은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첩으로, 총 21신이 실려 있는데, 〈완당문집〉(여초의)와 중복된 것이 13신이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편지도 8신이나 된다. 이들이 나누었던 지음의 아름다운 세계는 이것을 통해 더욱 풍요롭게 밝혀지리라. 새로 발췌된 〈벽해대운첩〉4신의 내용은 이렇다.

一以阻截 適從人獲見所? 觀音眞影 何異見師 殊勝相也 但筆法何時到此地位 讚歎不已
大? 焦墨一法 爲不傳妙諦 偶因許癡發之 何料墨輪轉又及於師也 此像卷見爲黃山高書所藏 尚書將欲手寫師所作讚語於其下 洵爲禪藝圖一段佳話 恨無由拉師共見耳 近寒禪安念切 此狀嗾甚 四大之苦如是也 茲因秀爽便 略申不具 新贊付之 己亥 臘吉

모든 소식이 끊이고 막혔다가 마침 종자(從者)로부터 (그대가) 그린 관음진영을 얻어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를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마는 정말 뛰어난 호상(好相)이구려. 하지만 (관음진영을 그리는) 필법이 언제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소. 경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개 초묵법(焦墨法)은 진한 먹을 사용하여 그리는 것이 전하기 쉽지 않은 오묘한 진리인데, 우연히 허소치가 이어 드러냈으니 전해지고 전해진 초묵법이 또 그대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관음상권(觀音像卷)은 황산 김유근상서께서 소장하러 하십니다. 황산 대감께서 그대가 그린 관음상의 하단에 찬탄하는 글을 손수 쓰고자 하시니 초의 그대는 선림예단(禪林藝團)의 아름다운 얘기꺼리입니다. 그대를 끌고 함께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구려. 근래 추위에 그대의 수행은 편

“그대는 ‘선림예단’의 얘기 꺼리”



〈벽해대운첩〉추사편지 도판

추사는 초의의 관음진영보고 감탄

초묵법 절세의 명작 소재 자못 궁극

안하신지요. 마음만 간절합니다. 나는 기질이 심하여 사대육신의 고통 또한 견디기 힘듭니다. 여기 수석 편에 대략을 전하고, 나머지는 이만... 새 책력을 보냅니다. 1839년 12월 초 하루

초의의 그림 솜씨는 익히 세상에 알려졌던 듯. 추사는 초의가 초묵 필법으로 그린 관음진영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언제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냐”는 추사의 물음은 초의의 팔목(副目)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다. 이미 오래 전 초의의 일격(一格)은 다산의 문하를 드나들던 시절, 스승의 요청으로 그린 〈다산도〉와 〈백운동도〉에 들어난다. 당시 선림예원을 대표했던 초의는 특히 불화에 능했으니 그의 관음진영이 권세가의 애호품이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추사가 “이 관음상권

(觀音像卷)은 황산 김유근상서께서 소장하러 하십니다. 황산 대감께서 그대가 그린 관음상의 하단에 찬탄하는 글을 손수 쓰고자 하시니 초의 그대는 선림예단(禪林藝團)의 아름다운 얘기꺼리입니다”라고 한 추사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추사가 말한 황산은 누구인가. 김유근(1785~1840)이다. 황산은 그의 호이며, 김조순(1765~1832)의 아들이다. 그의 부친 김조순은 딸이 순조 비 책봉된 후, 세도 정치의 기를 마린했던 최고의 권세기였다. 황산은 상서(尙書)라 칭한 것은 그가 이조판서에 제수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황산은 갈목(渴墨)의 운치와 간일(簡逸)한 필치, 문기 있는 예술의 세계를 풍미했던 남종화풍의 문인화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가 초의의 관음진영이 절세의 명작임을 한 눈에 알았을 터. 그가 이 진영의 말미에 찬사를 쓰려했던 것은 천의무봉의 관음진영에 감동된 것은 아니었을까. 자비한 화신 관음보살, 아쉽게도 이 절세의 명작이 지금까지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낸 적은 없다. 그 소재가 자못 궁극하다. 아울러 황산의 안목을 누리게 했던 초의, 이들의 첫 만남은 언제였을까. 이들의 교유는 1830년, 초의가 상경했을 때 추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초의는 김조순의 막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니 황산과의 인연은 이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들이 함께 주고받은 시는 〈일지암시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편 초의의 초묵법이 소자에게 전해졌다는 추사의 증언은 실로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이들이 함께 주고받은 시는 〈일지암시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편 초의의 초묵법이 소자에게 전해졌다는 추사의 증언은 실로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이들이 함께 주고받은 시는 〈일지암시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편 초의의 초묵법이 소자에게 전해졌다는 추사의 증언은 실로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박동춘(동아시아 문화연구소장)

클래식음악으로 동체대비 실천

강형진 단장(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래식과 교향악은 기독교 문화의 영향으로 발전한 서양음악이다. 때문에 전통문화를 중요시하는 불교계에서는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또 연주회 한 번에 수천 만원이 소요돼 특정 기업이나 정부의 후원 없이 개인 혼자서 대형 단체를 운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강형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단장(60)은 클래식 음악의 황무지라 할 수 있는 불교계에서 서양 클래식 음악으로 홀로 포교를 해 나가고 있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니르바나)는 1999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출범했다. 봉축기념음악회와 소아암환자돕기음악회 등 자선후원음악회를 봄·가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키즈음악회·산악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회를 열어오는 등 불교계 유일한 서양음악연주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니르바나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형진 단장은 “서양음악과 불교를 접목해 음성포교를 하겠다고 발원했다”고 말한다. 강 단장의 말처럼 니르바나의 캐치프레이즈는 ‘서양의 언어로 동양의 정신을 펼쳐나간다’이다. 서양의 악기와 기법에 한국적인 가락이나 정신을 접목하는 것, 클래식을 도구화해 불교정신을 넣는 것이 불교계 클래식이라는 설명이다.

학동기인 정부기 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을 만났다. 그때 강 단장은 정부기 이사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불교음악회에 바이올리니스트로 찬조공연을 맡으면서 ‘왜 서양음악이 개신교의 전유물이어야 하나. 불교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서 1999년 2월 ‘니르바나 실내악단’이 창단했다. 처음에는 체임버 형식의 소규모 실내악단으로 작게 꾸려나갈 생각이었다. 그러다 2002년 남들은 따내기 어렵다는 서울시 문화과에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아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점점 규모를 키워왔다.

강 단장은 당시 국내에서 가장 크고 인정받는 KBS 교향악단 단원생활을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자부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니르바나는 창단 이후 7년여 동안 자선음악회를 신년마다 개최하고 산악음악회 등 불교계 행사에 단골로 초청돼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정우택 박물관과 함께하는 불화이야기, 이시우 박사과 함께하는 천문학이야기 등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 쉬운 클래식, 가극 등과 함께 엮어가는 테마연주회는 새로운 시도로 화제가 됐다. 그러나 강형진 단장의 신심과 열정만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사재로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그러다 결국 강 단장은 2005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봉축기념 제7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을 켜세요~

강화사자발악썩양초

- ① 약썩초 90cm×90cm
- ② 약썩초 연봉 원기둥 7.0φ×34cm
- ③ 약썩초 돈타레 5.6φ×27cm
- ④ 약썩초 밀대 4.7φ×25cm
- ⑤ 약썩초 1호 5.9φ×18cm
- ⑥ 약썩초 2호 5.9φ×14cm
- ⑦ 약썩초 3호 4.7φ×13cm
- ⑧ 약썩초 4호 4.7φ×10cm
- ⑨ 약썩초 4호 반야심경 4.7φ×10cm
- ⑩ 약썩초 3호 반야심경 4.7φ×13cm
- ⑪ 약썩초 2호 반야심경 5.9φ×14cm
- ⑫ 약썩초 1호 반야심경 5.9φ×18cm
- ⑬ 약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용)
- ⑮ 약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금로망이, 금용)

한봉밀납양초

- ① 밀납초 90cm×90cm
-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φ×34cm
- ③ 밀납초 돈타레 5.6φ×27cm
- ④ 밀납초 밀대 4.7φ×25cm
- ⑤ 밀납초 1호 5.9φ×18cm
- ⑥ 밀납초 2호 5.9φ×14cm
- ⑦ 밀납초 3호 4.7φ×13cm
- ⑧ 밀납초 4호 4.7φ×10cm
-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10cm
-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13cm
-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φ×14cm
-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18cm
-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용)
-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금로망이, 금용)

신개념 크리스탈 반침 P.C컵 밀납초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원기둥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비자무로전화 080-0766-8888

에티오피아 여성, 소아암 환자 돕기 공연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등 지도 클래식음악으로 불법 전하겠다 다짐 재정문제, 인식부족으로 해체위기 겪기도 후원회 도움으로 재기...인재양성 힘써

해외진출목표 ‘잇다르타’ 뮤지컬 기획 공연기획사 설립해 본격 준비

희 니르바나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성황리에 마친 뒤 해체를 결심하기에 이른다. 600여 명의 관객이 저마다 환희심을 가득안고 돌아간 뒤였다.

해체소식이 전해지자 니르바나를 살려내기 위한 후원회가 발족했다. 바로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1인당 1만원 보시하기 후원회’. 평소 강 단장이 종종 들리던 해산불 전문음식점 ‘해장집’의 오시환 대표에게 고충을 이야기 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당시 후원회는 “7년 간 힘겨운 버티는 불교계 유일한 서양음악 오케스트라를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 없다. 단장은 니르바나의 회생을 위해 시작한 후원활동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자 음악인들이 제대로 설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 지원에 나섰다. 회원 1000명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불교계에서 예술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 보니 현재 회원 수는 240여 명에 불과하다.

이 때 강 단장은 “후원 가족들의 기대와 도움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회고하며, 불교음악 창작과 음악을 통한 해외포교, 재능있는 불자 음악인 발굴 등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2006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니르바나 주니어 챔버’를 창단해 재능 있는 불자 음악인 발굴에 힘을 썼다. 부모들이 법회에 참석하는 동안 사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수준 높은 연주자들을 선성님으로 구성하고 사찰에서 일정액을 부담해 학원보다 저렴한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2011년 또 한번 좌절을 겪었다. 사찰에 공간이 없다는 것과 신도들이 기도하는 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폐쇄된 것.



강형진 단장은 1999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후 소아암환자돕기음악회 등 자선후원음악회와 산악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불교계 유일한 서양음악연주단으로 자리매김했다. 2007년 내소사산악음악회에서 공연을 선보인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 1977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하고 전 KBS 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했다. 1994년 Bulgaria sophia academy 석사과정 졸업한 후, 1999년 니르바나 실내악단을 창단했다. 2006년 불교여성개발원 제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된 그는 '2003 행원문화상' '2006 대원상 특별상' '올해의 인재상' '2012 제1회 불교 음악상 원력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현재 현 불교계 유일의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 및 대표로 있으면서 현 JK상상을 매니지먼트 대표 · 공연기획사 아카사 대표를 맡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아이가 재능이 있고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요새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는데 합주 공연은 아이들의 협동심과 배려심을 길러줍니다. 또 음악공부를 하러 절에 오니 어린이포교의 씨앗이 될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 음악교육을 통해 오케스트라를 개최하겠다는 꿈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강 단장은 언젠가는 꼭 이루겠다는 희망을 가슴 한 켠에 두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런 뜻의 발로로 시각장애인 김지선 씨를 발굴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합격시켜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모인 김남윤 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양과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모차르트 콘체르토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강 단장은 후원자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사회로 환원했다. 2011년에는 에티오피아 아이들과 여성동기 음악회, 2012년에는 '지구'를 주제로 환경음악회를 선보였다. 올해부터는 태고종 자비 나눔단체 '나누우리'와 함께 분기별로 환아들이 자선음악회를 열어 수익금을 회향할 계획이다.

강 단장은 재미와 예술, 부처님의 가르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연들도 기획했다. '바흐와 삼매' '칸타타 담파다'가 대표적인 기획 공연. '바흐와 삼매'는 바흐의 선율을 통해 종교적 삼매를 체험하는 형식으로 중간에 불컬리스트 이미령씨가 나와 해설을 곁들였다. '칸타타 담파다'는 <범구경>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160여 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한 유례없는 대규모 공연이었다. 이 밖에 '법의학자가 들려주는 음악가들의 생로병사에 얽힌 이야기-슈베르트, 차이코프스키 등' 시리즈는 클래식을 잘 모르는 관람객들에게도 흥미와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바흐의 곡에 삼매라는 개념 하나만 심어줘도 충분한 포교가 되거든요. 이런 작은 씨앗을 하나 심어놓으면 불교에 대한 관심이 언젠가는 커지리라 봅니다.”

조금이나마 불교를 알리겠다는 그의 노력을 부처님께서도 알았는지 2012년 제27회 불이회 시상식에서 음악을 통한 불교 문화의 저변 확대에 크게 공헌한 점

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또한 그는 중앙선교회 불교인재개발원이 선정하는 '2007년 올해의 인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클래식과 불교의 공통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강형진 단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소리라는 것은 범세도 없고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연습할 때 들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연습합니다. 나의 마음이 균형 있게 잡히지 않는다면 소리에 대한 판단이 깨집니다. 또 소리에 너무 몰입돼 연습하면 다른 악기와 불협화음을 내기도 합니다. 또렷이 깨어 있되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죠. 성성적(惺惺寂寂)한 상태로 악기를 연주해야 합니다. 박사, 소리 등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소리를 맞춰야 해요. 필하모닉(philharmonic)에서 필(Phil)의 어원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고자 하는 경이로운 행위가 클래식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가르침과 너무도 닮지 않았나요?”

강 단장은 공연을 하기 전에 늘 부처님께 절하듯 관객들에게 절을 올린다. 대부분 종교가 개신교, 천주교인 단원들에게는 불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연주에 앞서 이 말을 꼭 전한다.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교음악회 연주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입니다. 남의(타종교) 공연에 와서 연주하고 가면 남의 공연 밖에 되지 않지만 내 공연이라 생각하면 진정한 자기 것이 됩니다. 불교로 말하자면 '수처적주입제거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연주자들에게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반드시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한다. 요가와 참선을 통해 해법을 찾고 연주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연주자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 단장의 역할이다.

강형진 단장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한 수행을 계속해 나가기로 다짐한다. 현재 해외진출을 목표로 부처님 일대기를 대형 뮤지컬로 제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연출, 음악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 또한 판소리 오페라도 기획해보고자 '아카사(Akasa: 빨리어로 우주라는 뜻)'의 공연기획사를 설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니르바나 창단 이후 한시도 니르바나가 마음에서 떠나 본적이 없다는 강 단장. 니르바나 운영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보내느라 가족에게 편잔을 듣기도 하지만 창단하면서 자신과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려 한다.

“지금 여기(Now and Here)가 제 삶의 모토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일하듯 계획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니르바나를 운영하기는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그만큼 '현재와 지금'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눈앞에 닥치는 경계를 하나하나 순응하며 사는 것이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굴 원망하거나 탓하는 일로 쓸데없는 정신적 소모를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매순간마다 저를 지켜주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제 모든 것을 걸고 니르바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국길상음악회에서 바이올린 솔로 연주를 선보이는 강형진 단장

이나는 기자 oasis1983@ryunbul.com

전법일기

해외포교사 존경스러워

해외포교의 인연, 미국의 경험

94년 여름, 1년을 기약하고 떠난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불교국가 순례길에 4개월에 접어들 때 스리랑카에서 여름안거를 지내고 있었다.

보다 의미 있는 만행을 위해 영어공부도 하고 힘을 얻어가던 참선에 좀 더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안거를 반쯤 지냈을 때 영어공부는 제법 진전이 있었지만 정진에 큰 고비가 왔다. 좌선을 하면 속이 팍 막힌 듯 거북함과 답답함이 점점 심해지며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때 마침 희한하게 승산 스님께서 스리랑카에 오셨고 스님께 가르침을 받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스님께서는 동안거부터 당신의 지도하에 공부하기를 권하셨지만 계획한 여행이 많이 남았기에 양해를 얻어 다음해 하안거에 들기로 했다. 95년 하안거, 한국스님으로 온전하게 한 절을 산 스님이 거의 없었다는 화계사국제선원생활은 해인사 승가대학 1학년인 치문만 시절보다 수월하지 않았다.

용통성이 거의 없는 원칙적인 수행일정과 매일 아침 큰스님의 법문, 그리고 매주 있는 선문답은 10년차 승려를 완전히 초발심자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정진에도 큰 발전이 있었지만 이제는 유명인이 된 현각스님을 비롯한 많은 외국 인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국제적인 감각도 익힐 수 있었다.

해외포교에 뜻을 세우고 20여년 세계 각국에 100여 곳의 선원을 건립하고 많은 외국인들을 출가하게 한 승산스님의 원력과 범력을 몸으로 마음으로 사무치게 느낄 수 있었다. 큰스님께서는 당신의 지도아래 더 정진하기를 권하셨고 나 역시 그러기를 원했지만 그 해 겨울, 해외포교의 인연이 되어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미국의 달라스 포교당에서의 생활은 일생을 통해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다. 고국과 대중을 떠나 홀로 된 승려가 접할 수 있는 고독과 외로움, 스스로 모든 것을 해쳐 나가야 하는 막막함 등등 마치 동지를 갖 떠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위태로운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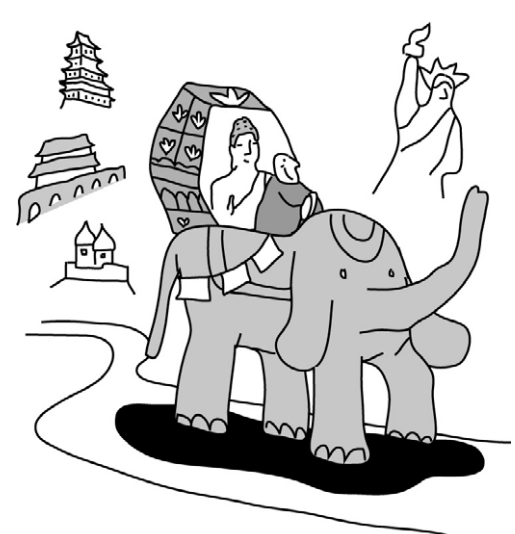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스리랑카서 안거 중 승산 스님 만나 달라스 포교당서 홀출단신 포교 6개월 뒤 귀국...해외포교 고충 느껴

시 그러기를 원했지만 그 해 겨울, 해외포교의 인연이 되어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미국의 달라스 포교당에서의 생활은 일생을 통해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다. 고국과 대중을 떠나 홀로 된 승려가 접할 수 있는 고독과 외로움, 스스로 모든 것을 해쳐 나가야 하는 막막함 등등 마치 동지를 갖 떠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위태로운 여

린 새의 느낌이었다. 그런 와중에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애환과 갈등,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은 실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세탁소 일을 하며 미국포교를 시작했다는 승산 스님을 비롯한 해외포교에 몸담은 스님들의 고생과 헌신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마음속으로 3년을 기약하고 떠난 길이었다. 한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교민신문에 글을 연재하며 한국불교의 정서를 전하고, 예배기도를 근본으로 하여 포교당생활에 전념한 까닭에 신도들도 조금씩 늘었다. 경험이 쌓이고 인간적인 인연도 늘어가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고 영어공부도 계속하였다.

하지만 또한 내면에서는 갈등과 고민이 커져가고 있었다. 아무리 주일노릇을 하고자 하여도 매일 수백에 달하는 간격을 좁힐 수 없었던 포교당의 소유형태와 소유자와의 불안정한 관계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었다. 비자만료기간인 6개월이 되었을 때 결국 귀국을 결정하였다.

“북극이나 사하라사막에서도 생존가능 할 정도의 인간이 미국생활을 못 견뎠다.”는 도반들의 지적은 놀림도 있었지만 내게는 장애를 통해 발전을 경험한 수행생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페이스북에는 그때 인연을 맺었던 불자가 친구를 맺어서 가끔 안부를 전하곤 한다. 더 위안과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고 잘 지내고 있음에 감사한다.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부처님의 큰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열여덟 분 스님이 마음에 던지는 큰 울림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다음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명법문 시리즈04
우리 시대 스님 열여덟 분이 들려주는 희망 법문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랴

자유 스님 외 17명 184쪽 / 11,000원

가슴이 부르는 만남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해인 수녀, 혜민 스님, 김선우 시인.....

법정 스님과 만난 열여덟 뛰는 가슴, 제 고유한 빛깔로 세상을 물들이다

“그 사람 일생이 내게 오는 건 이 순간뿐인데 놓치고 후회 말고 꼭 짚고 드리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사람들이 날 만나면 기쁘다니까 보여 줄 수 있을 때 기꺼이 보여 드리자.' 하는 마음이에요.” - 이해인 수녀

“여행자가 지닌 빛 끈 되지 않는 책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책이 법정 스님 책이에요. 책에서만 스님을 뵈고 '무소유' 같은 책을 자기 삶에 특별한 표정처럼 늘 가지고 다녀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나게 돼요.” - 김선우 시인

“아무리 좋은 말이나 관심도 내가 평가받는다느니 느낌이 들면 싫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비취 주세요. 따뜻하게, 그게 사랑이에요.” - 혜민 스님

가슴이 부르는 만남

변태주 지음 / 352쪽 / 15,000원